

“논콩 생육 초기 병해충 관리 철저”

농진청, 5~6월 논콩 재배지 해충 발생 증가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논콩의 안정생산을 위해 생육 초기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잡초를 소개하고 적기 방제와 관리를 당부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지난 5월 논콩 주요 재배지에서 실시한 토양병 진단 결과, 역병, 검은뿌리썩음병 병원균을 확인했다. 파밤나방, 담배겨세미나방 등의 주요 해충은 5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발생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주요 재배지는 전북 김제, 부안 전 남 장성, 경북 상주, 인동, 충남 논산 등 6개 지역이고 파종 전 토양 내 병원균 진단 결과 상주와 논산 지역은 파밤나방이 담배겨세미나방보다 발생이 많고 김제 지역은 파밤나방과 담배겨세미나방이 비슷하게 발생한다.

반면, 파종 후 출현한 식물체를 육안으로 진단한 6월 하순 조사에서는 뿌리썩음이나 사들음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잡초는 개풀, 명아주 등의 여름 잡초가 5월 초부터 발견돼 다소 발생이 빨라진 것을 확인했으며, 6월 하순에는 콩과 경합해 수확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귀풀 발생도 확인했다.

콩 생육 초·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병은 역병, 검은뿌리썩음병 등의 토양병과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 병이 있다. 역병은 땅에 닿은 줄기가 검어지며 어린 모가 죽고, 검은뿌리썩음병은 잔뿌리가 없어지며 식물체가 마른다. 토양이 물에 잠기거나 습하면 많이 발생하고, 모가 잘록해지는 모잘록 증상도 자주 나타난다. 병 발생 초

기 또는 잠마 직후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 방제한다.

바이러스병(SMV, SYMMV 등)은 주로 잎에 얼룩무늬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병을 옮기는 진딧물을 방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진딧물 발생 초기나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해충은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담배겨세미나방 등의 애벌레가 피해를 준다. 거세미나방 애벌레는 땅에 떨어진 어린 모 줄기를 잘라 먹는데, 토양 살충제로 방제한다. 파밤나방과 담배겨세미나방 애벌레는 어린잎이나 줄기 생장점을 갉아 먹어 피해를 준다. 애벌레 발생 초기에 7~10일 간격으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잡초는 개풀, 명아주, 비랭이, 자귀풀, 피, 비름 등이 있다. 보통 작물을 파종할 때 토양처리 제초제를 처리해 방제한다. 지난 5월에 논콩 재배지 독

주변에서 환삼덩굴과 같은 덩굴성 잡초들을 확인했다. 6월 하순에는 재배지에서도 확인돼 잡초 방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풀이나 자귀풀처럼 방제 효과가 다소 떨어지거나 환삼덩굴 같은 덩굴성 잡초는 발견 즉시 비선택성 경엽처리제를 밭고랑(휴간)에 뿌려 방제한다.

약제 방제할 때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IS)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등록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물어름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돼 병해충과 잡초 발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비리 물 빠져나가는 길을 정비해 침수나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권재한 신임 농진청장 임명

농정 전반 해박한 정통관료... 정책총괄 경험 풍부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돼 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인사로 농정 전반에 해박한 정통 관료로 분류된다. 대구 출신(1988년생)인 그는 고

려대 경제학과와 미국 일리노이대 정책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4년 공직에 들어와 협동조합과장 장관 비서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 등 농식품부 주요 부서에서 두루 근무했다. 정책총괄 경험이 풍부한 뿐 아니라 국제감과 강한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 농업·농업인·농촌 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 농촌지도 사업 등을 혁신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옥기 기자

식품연, 미국 3개 대학 ‘현지거점연구실’ 한국 설치

식품공학·안전, 인체영양 분야 R&D 국제협력 교두보로 공동연구 수행 계획 중



한전 임실지사, 임실북부권 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지사장 김명진, 위원장 박종성)는 4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임실북부권노인복지관과 양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전 임실지사 김명진 지사장과 임실북부권노인복지관 김윤경 관장이 참여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로 임실지사와 임실북부권노인복지관 간의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김명진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식품 R&D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을 보유한 미국 하와이대, 오리건주립대, 퍼듀대의 한국의 On-Site Lab(현지거점연구실)이 2일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On-Site Lab은 식품연에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단순한 연구실 설치를 넘어 식품 연구 개발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과의 실질적인 연구 협력 및 인력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단순 설치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R&D 국제협력의 교두보로 상호 인력파견 및 공동연구 수행을 연내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하여 상호



기관 현지거점연구실을 연초에 미국에 설치하고, 이후 한국 설치를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식품연은 미국 연구자의 한국 파견 및 한국 연구자의 미국 파견 및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예정이다.

이번에 식품연에 설치된 미국 하와이대(전수진 교수), 오리건주립대(박시홍 교수), 퍼듀대(김기홍 교수)의 연구실은 각각 식품공학, 식품안전, 인체영양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의 연구 실적과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연 백형희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식품연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 안전성 강화, 인체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CF연합과 무탄소에너지 실현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일 CF연합(CFA : Carbon Free Alliance)과 ‘새만금 무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새만금 사업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F연합은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출범한 기후로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인 CFE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CF연합 이희성 회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입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추

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CF연합과의 협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성 CF연합 회장은 “이 업무협약이 새만금개발청이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을 통한 국가 무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협력의 계기이자, “세계 각국이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지금,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 경쟁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며, 새만금개발청 주관의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는 무탄소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중 5·6공구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2022년 7월, 국토교통부)되어,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를 저감하고, 2040년까지 전원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설 구축과 관련한 정보와 전략계획을 2023년 12월 수립했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 센터 건립 설계를 착수했다. /이만호 기자

롯데백 전주점, CYC 프리미엄 USA 빈티지 마켓 열어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강중구)는 오는 11일까지 6층 이벤트 홀에서 전복지역 최초 미국 유명 브랜드의 다양한 빈티지 의류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는 ‘CYC 프리미엄 USA 빈티지 마켓’을 열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분당 300평 규모의 프리미엄 빈티지 매장을 운영해 많은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핫플



레이스로 유명한 ‘CYC코퍼레이션’의 빈티지 마켓 행사로, 폴로, 티미힐피거, 리바이스, 파타고니아, 칼하트 등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의 빈티지 의류

1만 여점을 매일 최상품 품질로 선별, 입고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폴로/티미힐피거 기본 티셔츠 1만8900원부터, 폴로 셔츠 2만8900원부터, 리바이스데님 2만8900원부터, 칼하트 워크팬츠는 3만8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특히 이번 CYC 프리미엄 USA 빈티지 마켓 행사 기간 중 주목 할 만한 이벤트로는 전 상품 구매시 3+3(6장 중 낮은가격 3장 무료)혜택을 준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